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면 [사사기 7]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일찌기 일어나서 하룻샘 곁에 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다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명이요 남은 자가 일만명이었더라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핏물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9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종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엷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14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16 삼백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향아리를 들리고 향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일백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향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향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21 각기 당처에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달음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 삼백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벤 싯대에 이르고 또 답뱃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24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벤 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25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엱은 스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경로를 통해 기드온을 설득하셨습니다. 천사의 인사, 완전한 승리의 약속, 하나님의 임

재의 확산, 불의 임재를 통한 가시적인 보장, 마을 사람들의 저항을 물리친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지원 그리고 양털의 시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투를 위해 기드온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8년 연속 이스라엘을 약탈하러 옵니다. 135,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군대. 오늘 설교본문 12절에 보면 **“12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네 군대가 너무 많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본문 2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사기 7:2) 하나님은 단지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신뢰와 믿음 안에 성장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싸움은 미디안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스라엘의 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교만과 자신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20) 그리하여 분류가 시작됩니다. 신명기 20:8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동료들의 마음도 자기 마음처럼 녹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강함 대신에 우리의 약함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보다는 문제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22000명의 병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 군대가 여전히 너무 많다!”** 그리하여 다른 시험을 통해 300명만 최종적으로 남았습니다. 300 대 135000. 이제 남은 유일한 선택은 오직 주님을 신뢰하거나 멸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9절), **“...두려워하거든...”** (10절), 네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도청하라! 보리빵 비유는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휘장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던 그분의 뜻을 은혜롭게 드러내십니다. 이야기 속 뒷이야기를 엿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15절: 기드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깨닫고 멈춰 서서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왜 135,000명의 군대가 300명의 군대, 특히 훈련받지 않은 병사들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미디안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이상한 불안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위해 이미 미디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14는 이렇게 말합니다. **“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승리였습니까! 수적으로 열세인 그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각각 100명으로 구성된 3개의 그룹으로, 최대한 많은 소음을 내고 소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이었다. 누가 그 강력한 군대를 혼란스럽고 겁에 질리게 만들어 아비귀환으로 만들었습니까! 낙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남자들은 천막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공포에 질려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기드온의 300인은 그저 서서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지켜보았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겁에 질려 반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3-4). 135,000명의 군인을 상대로 향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갖춘 300명의 장정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일은 전장을 청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